



# 삶을 디자인하는 새로운 바람

## 룸앤데코 대표 양진석

서울 압구정동에 자리한 '전망좋은방' 본점에 들어서자 환한 봄기운을 머금은 듯 신선함이 느껴진다. 저마다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어우러져 있는 소품들은 하나하나 꼭 한번 갖고 싶어지는 것들이다. 꽃 한 송이 꽂아놓고 초 하나 켜두는 자잘한 즐거움은 팍팍해지기 쉬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행복법이다. 이 행복법이 담긴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삶 속의 디자인, 그것이 바로 룸앤데코 양진석 대표(39)가 가진 디자인 철학이기도 하다.

**작** 년 6월, 가구업체 룸앤데코는 인테리어 회사 양진석디자인을 흡수합병하면서 양진석 대표를 선두에 세운 디자인 중심의 혁신 기업으로 거듭났다. '전망좋은방 양진석 LIVING'이라는 새 브랜드를 앞세우고 힘찬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양 대표는 디자인벤처는 CEO 브랜드와 전문가의 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종인 만큼 두 회사 간의 합병은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. 단순히 수익내기를 위한 합병이 아니라 디자인업계에 보다 새롭고 유연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시도한 힘찬 도약의 첫 걸음이다.

### 디자인 벤처로서 거듭나기

“설계, 감리에서부터 인테리어, 가구 등 소품까지 원스톱 리빙의 개념을 도입한 멀티브랜드로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. 또한 중소기업, 특히 디자인 벤처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자신하고 있습니다.”

지난 2월 27일 열린 벤처기업협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양 대표가 새로운 이사진에 합류하게 된 것도 이와 맞닿아 있다. 올해를 벤처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협회와 새 길을 열어가고 있는 양 대표의 동행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.

“늘 새로운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디자인 업종의 특성은 젊은 벤처 정신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.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조함으로써 진로를 고민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.”

사익만을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성 있는 윤리경영을 보여주고자 하는 양 대표의 바람이 담겨있다. 양 대표는 잘 알려져 있듯 ‘러브 하우스’ 등 몇몇 TV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또 다른 진면목을 보여준 바 있다.

### 우리 삶의 리모델링

마침 방송인으로서 한동안 뜸했던 양 대표가 새롭게 참여한 TV 프로그램이 있다. 오는 3월 28일부터 KBS에서 방영하는 ‘도시의 마법사(가제)’가 그것. 양 대표는 이 프로그램에서 집 리모델링을 넘어서 이제는 환경을 리모델링하고자 나서는데, 프로그램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도시 속 우리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찾아가 사랑의 숨결을 불어넣고 새로이 빛어내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란다.

“어둡고 위험한 우범지역을 더 밝고 건강한 장소로 탈바꿈시키고 버려진 공간을 잘 활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등 도시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. 이는 우리 삶의 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고 싶다는 제 평소 디자인 철학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”

양 대표는 자신의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에



대한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서도 꼭 하나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 있다.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잘 녹아나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이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는 믿음이다.

“카페처럼 보기 좋은 집이 아닌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이 가장 좋은 집이 아니겠냐”며 미소 짓는 양 대표. 그의 노력을 통해 우리 삶의 공간이 좀 더 생명력 넘치는 사랑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.

### 봄날은 펼쳐진다

합병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양 대표는 시작에 앞서 튼튼한 바탕을 다지고 새 땅을 일구어냈다. 불경기를 돌파하기 위해 인원조정, 매장철수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상품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고 직접 가구를 디자인하고 상품을 기획하는 등 적은 인원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꾀하였다.

최근에는 d&shop이나 Hmall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도 진출하여 유통채널을 다변화하고 키즈 가구 브랜드 ‘리틀 전망좋은방’을 새롭게 런칭하기도 했다. 올봄에는 바빠서 춘곤증을 앓을 새도 없을 것 같다는 양 대표. 그의 표현처럼 그야말로 100가지 이상의 일을 처리해왔고 앞으로도 수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이뤄가야만 할 것이다.

변화무쌍하면서도 늘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며 달려가는 그는 가구 이름도 ‘Sunday Morning’으로 지을 만큼 화창하고 푸르른 것을 좋아한다. 그의 봄날 역시 밝고 활기찬 날들이 될 것 같다.